

콜롬비아 국별 리포트

2014. 3.

I. 일반개황	1
II. 경제동향	2
III. 정치·사회동향	6
IV. 국제신인도	8
V. 종합의견	11

I. 일반개황

면적	1,039천 km ²	GDP (2013년도)	3,797 억 달러
인구 (2013년도)	47.15 백만명	1인당GDP (2013년도)	8,053 달러
정치 체제	대통령중심제	통화단위	Peso (Ps)
대외 정책	경제중심 실리외교	환율(U\$기준) (2013년도)	1,868.79

- 중남미 인구 3위, GDP 5위의 콜롬비아는 석탄, 석유 등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한 자원 부국임.
- 반세기 동안 이어진 반군세력 활동과 마약, 납치, 살인 등 강력범죄가 만연하여 심각한 정국불안이 지속되어 왔으나, 2002년 이후 강력한 게릴라 소탕 작전으로 치안상황이 일부 개선됨.
- 2012년 멕시코, 칠레, 페루와 함께 태평양동맹(Pacific Alliance)을 결정하여 중남미 신경제블록을 형성하고 있음.

II. 경제동향

1. 국내경제

<표 1> 주요 국내경제 지표

단위: %

구 분	2009	2010	2011	2012	2013 ^e
경제성장률	1.7	4.0	6.7	4.0	3.7
재정수지 / GDP	-2.8	-3.3	-2.0	0.2	-1.0
소비자물가상승률	4.2	2.3	3.4	3.2	2.2

자료: IMF.

□ 정부지출 및 민간 소비·투자 증가 등으로 2014년 경제성장률 4.2% 시현 전망

- 풍부한 천연자원으로 광산업이 발달하였으며, 정부의 적극적인 인프라 투자 유치 정책으로 건설업이 콜롬비아 경제성장을 견인하여 2010년 이후 연평균 4.6%의 안정적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.
- 2012년에는 경기과열을 막기 위한 정부의 긴축정책, 대외수요 침체, 원자재 가격 상승세 둔화, 원유 및 커피의 생산 감소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전년보다 둔화된 3.9%를 기록함.
- 2013년에도 광업 생산 감소, 민간 소비·투자 위축, 대외수요 침체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전년보다 둔화된 3.7%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. 2014년에는 3월 총선, 5월 대선으로 인한 정부 지출 증대, 민간 소비·투자 심리 개선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4.2%(IMF)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.

□ 선거 등으로 인한 선심성 정부지출 증가로 2014년 재정수지는 -1%대 적자 전망

-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인한 정부 수입 감소, 사회복지 부문에 대한 재정지출 확대 등으로 2012년을 제외하고 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음.

- 2012년에는 조세제도 개선 등의 재정개혁으로 재정수지가 GDP 대비 0.18%의 소규모 흑자를 기록하였으나, 2013년에는 광업, 인프라 등에 대한 정부 투자 증가로 GDP 대비 -1%의 소규모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.
- 2014년에도 총선, 대선 등으로 인한 정부 지출 증가로 재정수지가 -1%대의 소규모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.

□ 폐소화 가치 하락 등으로 2014년 소비자물가는 3%대로 상승 전망

- 금리인상 등 중앙은행의 효과적인 통화정책 집행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중앙은행의 목표범위(2~4%) 내에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음.
- 2012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식료품가격 안정, 내수 성장세 둔화 등으로 전년 보다 다소 하락한 3.2%를 기록함.
- 2013년에도 내수 성장세 둔화 지속으로 소비자물가는 2.2%까지 하락한 것으로 추정되나, 2014년에는 폐소화 가치 하락 등으로 소비자물가는 3%대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.

2. 경제 구조 및 정책

가. 구조적 취약성

□ 높은 대미 무역의존도 및 외부충격에 취약한 수출구조

- 2011년 기준 대미 수출비중이 42%, 수입비중이 29%로 미국에 대한 교역의존도가 높은 편이며, 수출의 70% 이상이 원유, 석탄, 커피 등 1차 산품에 집중되어 있어 국제가격 변동 및 기후변화 등 외부충격에 취약한 수출구조임.

나. 성장 잠재력

□ 풍부한 천연자원,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정책 등으로 에너지 및 인프라 부문 성장잠재력 양호

- 콜롬비아는 석탄(중남미 1위), 원유(중남미 6위) 등 풍부한 천연자원 매장량을 바탕으로 2011년 기준 브라질, 멕시코, 베네수엘라에 이어 중남미 4위의 에너지 생산국이자 순수출국임. 또한, 이웃국가와의 연계 전력망을 통해 2012년 기준 에콰도르, 베네수엘라 앞 714GWh 규모의 전력을 수출하는 등 전력순수출국이기도 함. 풍부한 천연자원,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로 콜롬비아 에너지 및 전력산업의 성장잠재력은 양호한 편임.
- 인프라 부문에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정책, 대규모 프로젝트 계획 등 성장 전망이 양호함. 2013년 인프라 부문 성장률은 5.5%를 기록함.

다. 정책성과

□ 친시장적 경제정책으로 국제신인도 및 기업경영환경 개선

- 전임 Uribe(우리베) 정권(2002~10년) 및 현 Santos(산토스) 정권 모두 친시장적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, FTA, 투자보장협정, 이중과세방지협정 등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법적장치 마련을 통해 우호적인 기업경영환경을 조성하고 있음.

- 콜롬비아는 세계은행의 'Doing Business 2014'에서 전체 189개국 중 43위, 중남미 국가 중 칠레, 페루에 이어 3위를 차지함.

□ 재정개혁 등 각종 개혁정책 추진

- 2011년 콜롬비아 정부는 2020년까지 만성적 재정수지 적자를 GDP의 -1% 수준으로 축소하는 재정준칙을 수립하였으며, 2012년에는 재산세, 부가가치세 등의 조세개혁을 통해 기업경영 비용 절감을 통한 기업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.
- 이 밖에도 연금 및 의료 시스템 개혁, 석유 로열티 수입을 통한 국부펀드 조성, 도로 및 항구 인프라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음.

3. 대외거래

<표 2> 주요 대외거래 지표

단위: 백만 달러, %

구 분	2009	2010	2011	2012	2013 ^e
경 상 수 지	-5,081	-8,919	-9,840	-12,124	-12,800
경 상 수 지 / G D P	-2.2	-3.1	-2.9	-3.3	-3.4
상 품 수 지	2,465	2,249	6,049	4,707	3,244
수 출	33,893	40,655	58,176	61,356	57,987
수 입	31,428	38,406	52,127	56,648	54,743
외 환 보 유 액	23,158	26,349	29,876	34,920	41,197
총 외 채 잔 액	53,731	63,621	76,569	83,658	87,865
총 외 채 잔 액 / G D P	23.0	22.2	22.8	22.8	23.1
D S R	37.7	30.1	28.0	34.9	40.3

자료: IMF, EIU, OECD(CRAM).

□ 석탄 수출 증가 등으로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폭 축소 전망

- 상품수지는 석유, 석탄, 커피 등의 수출로 소규모 흑자를 유지하고 있으나, 해외 아웃소싱 등으로 인한 서비스수지 적자, 외국기업의 해외송금으로 인한 소득수지 적자로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음.
- 2012년에는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세 둔화, 커피산업 침체 등으로 수출증가율이 둔화되면서 상품수지 흑자폭이 축소되어 경상수지 적자는 GDP 대비 -3.3%로 확대됨.
- 2013년에는 대규모 파업 등으로 석탄 수출이 전년보다 크게 감소하면서 상품수지 흑자폭이 감소하여 경상수지 적자는 GDP 대비 -3.4%로 확대된 것으로 추정됨. 2014년에는 파업 철회로 인한 석탄 수출 증가, 커피 생산 증가로 인한

커피 수출 증가 등으로 상품수지 흑자폭이 증가하면서 경상수지 적자폭은 GDP 대비 -2.7%로 축소될 전망이다.

□ FDI 유입으로 외환보유액 증가

○ 양호한 비즈니스 환경, 정부의 에너지와 인프라 투자 확대 정책 등으로 외국인 직접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외환보유액 증가에 기여하고 있음.

- FDI 유입액 추이(억 달러): 156.5('12년) → 173.5('13년 추정) → 176.6('14년 전망)

- 외환보유액 추이(억 달러): 349.2('12년) → 412.0('13년 추정) → 459.2('14년 전망)

Ⅲ. 정치·사회 동향

1. 정치안정

□ 2014년 5월 대선 후에도 대체로 정책 지속성 유지 전망

○ 유력한 경쟁후보의 부재,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지출 확대 등으로 2014년 5월 대선에서 산토스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. 최근 여론 조사에서 산토스 대통령은 우리베 전 대통령이 지지하는 술루아가(Zuluaga) 후보에 15%p 이상 앞서는 것으로 나타남. 양 후보 모두 외국인 투자 유치, 시장 지향적 정책 등 대체로 유사한 정책 노선을 견지하고 있어 대선 결과에 관계없이 정책 지속성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.

□ 콜롬비아 정부와 무장혁명군 간 평화협상 진행중

○ 콜롬비아무장혁명군(FARC)은 1964년 조직된 콜롬비아 공산당 무장단체로 콜롬비아 우익정부 전복을 위해 각종 테러 및 무장공격을 주도하고 있으며, 콜롬비아 정부와 반군세력은 1980~90년대 세 차례 평화협상을 시도했으나 모두 결렬되었음.

- 콜롬비아 정부와 콜롬비아무장혁명군(FARC)은 2012년 10월 평화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하였으며, 주요 의제는 농촌 개발, FARC의 정치 참여 보장, 분쟁 종식, 마약근절, 내전 희생자 보상 등임.

- 정부와 FARC 양측간 입장 차이와 계속되는 무력 충돌 등으로 협상 진행이 지연되고 있으나, 2014년 대선을 앞두고 협상이 진전을 보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됨.

2. 사회안정 및 소요/사태

□ 강력한 치안강화 정책으로 반군 무장세력 약화

- 콜롬비아는 지난 50여 년간 콜롬비아무장혁명군(FARC), 민족해방군(ELN), 우익민병대(AUC) 등 반군 조직들의 활발한 활동으로 불안한 치안상황이 지속되었으나, 2002년 이후 강력한 치안강화 정책과 미국의 지원 등으로 반군 무장세력이 최근 약화되었음.

- 그러나 현재 평화협상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FARC와 정부간 무력충돌이 계속되고 있어 치안 불안이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.

□ 소득불평등으로 인한 사회불안 요인 잠재

- 콜롬비아는 2010년 기준 지니계수가 0.56으로 중남미에서 소득불평등 정도가 가장 심각한 국가 중 하나임. 0.4%의 지주가 지방 토지의 60% 이상을 소유하는 등 토지분배에서 오는 구조적 불평등 등으로 소득불평등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움.

□ 커피산업 침체 등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위한 시위 발생

- 국제 커피 가격 하락, 기상 악화, 투자 실패 등으로 커피 산업이 침체된 상황에서 2013년 수천 명의 커피 재배 농민들이 커피산업에 대한 보조금 인상 등 정부의

재정지원을 요구하며 도로 점거 등의 시위를 벌였으며, 콜롬비아 최대 탄광인 Cerrejon에서도 정부의 광업 정책을 둘러싼 노동자들의 시위가 발생함.

3. 국제관계

□ 베네수엘라 등 좌파정권과의 관계 개선

- 우파성향을 유지해 온 콜롬비아 정부는 중남미 지역 내 좌파 정권 증가 및 미국에 대응한 역내 결집 등으로 인한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 베네수엘라 등 역내 국가와의 화해·협력을 적극 모색하고 있음.

- 2010년 8월 산토스 정부 출범 이후 에콰도르의 무관세 수입품에 대한 수입관세 조치를 해제하였으며, 베네수엘라와는 2011년 10월 3,000km 길이의 석유파이프 라인 설치 협약을 체결하는 등 관계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. 다만, 니카라과와는 영유권 분쟁이 지속되고 있음.

□ 아시아 국가와 외교 관계 다변화 지속

- 콜롬비아는 미국, EU 등 서방국가와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아시아 국가와 외교관계 다변화를 지속하고 있음.

- 한국과의 FTA 협상 타결, 일본과의 FTA 협상 추진, 중국과의 투자보장협정 및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등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를 모색 중임.

IV. 국제신인도

1. 외채상환태도

□ 외환보유액 증가 등으로 외채상환능력 양호

- 경상수지 적자 보전을 위한 해외차입 등으로 인한 외채규모증가로 외채원리금 상환비율(D.S.R) 역시 높은 수준임.

- 그러나 GDP 대비 총외채잔액은 20% 수준으로 비교적 양호한 편이며, 외환 보유액 규모, 낮은 단기외채 비중(총외채 대비 13%), IMF와의 신축적 신용공여 계약 등을 고려할 때 외채상환능력은 양호함.

* 콜롬비아는 단기 유동성 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국제시장의 신뢰 향상을 위해 IMF와의 신축적 신용공여 계약을 2009년 5월(105억 달러, 1년 만기), 2010년 5월(35억 달러, 1년 만기), 2011년 5월(62억 달러, 2년 만기), 2013년 6월(58억 달러, 2년 만기) 체결함.

□ 양호한 외채상환태도

- 2013년 9월말 기준 OECD 회원국의 ECA 승인금액은 총 109.1억 달러(단기 52.5억 달러, 중장기 56.6억 달러)이며 연체금액은 없음.
- 콜롬비아는 1980년대 초 중남미 외채위기 당시에도 공적 채무에 대해 리스케 줄링을 실시하지 않았으며, 현재까지 외채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어 외채상환태도는 양호한 것으로 보임.

2. 국제시장평가

□ 주요 ECA 지원태도

- 미국 EXIM: 최고 부보율 적용
- 영국 ECGD: 최고 부보율 적용
- 독일 Hermes: 단기 전액인수 가능

□ S&P와 Fitch, 재정건전성 개선 등으로 신용등급 상향조정

- 2013년 4월, S&P는 재정건전성 개선, 외부 충격에 대한 탄성 등을 반영하여 콜롬비아의 신용등급을 BBB-/Positive에서 BBB/Stable로 상향조정함.

- 2013년 12월, Fitch는 대외충격에 대한 회복력 강화 등을 반영하여 콜롬비아의 신용등급 전망을 BBB-/Positive에서 BBB/Stable로 상향조정함.

3. 우리나라와의 관계

□ 2013년 2월, 한-콜롬비아 FTA 협상 서명

- 한국과 콜롬비아간 FTA가 2012년 6월 타결되어 2013년 2월 정식 서명함. 양국은 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에 교역 중인 대부분 품목(품목수 기준 한국 96.1%, 콜롬비아 96.7%)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함.

- 양국간 FTA로 2011년 수립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 및 투자 확대, 중남미 시장 진출 교두보 확보, 자원협력 확대 등 양국간 경제통상 협력관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.

- * 한-콜롬비아 FTA는 2013년 11월 콜롬비아 상원 통과 후 현재 하원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으며, 2014년 상반기 내 통과 가능성이 있음.

□ 교역규모 및 해외직접투자 현황

- 양국간 교역규모는 2011년 19.9억 달러, 2012년 18.8억 달러, 2013년 15.5억 달러로 감소함. 우리나라는 콜롬비아에 자동차, 자동차 부품 등 공산품을 주로 수출하고 석탄, 합금철 등 원자재 및 자원을 주로 수입하여 양국은 상호보완적 무역구조를 가지고 있음. FTA가 발효되면, 양국간 교역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.

- 우리나라의 對 콜롬비아 해외직접투자는 2013년 말 기준 누계 총 신규법인수 46건, 투자금액 2.9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, 주로 제조업(61%), 광업(16%) 등에 투자하고 있음.

<표 3>

한·콜롬비아 교역규모

단위: 백만 달러

구 분	2011	2012	2013	주요품목
수 출	1,614	1,468	1,342	자동차, 자동차부품, 합성수지
수 입	380	145	207	석탄, 기호식품, 합금철선철 및 고철
합 계	1,994	1,613	1,549	

자료: 한국무역협회.

V. 종합의견

- 콜롬비아는 원자재가격 상승세 둔화, 대외 수요 침체 등으로 인한 수출 감소 등에도 불구하고 물가 관리 등 거시경제정책 운용을 통해 비교적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지속하고 있음. 2014년에는 정부지출 증대, 민간 소비·투자 심리 개선 등으로 4.2%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.
- 2014년 5월 대선에서 유력한 경쟁후보의 부재 등으로 현 산토스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며, 대선 결과에 관계없이 여야 후보 모두 시장 지향적 정책 노선을 견지하고 있어 대체로 정책 지속성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.
- 총수출 증가율 감소로 인해 외채원리금상환비율이 증가하였으나, GDP 대비 총외채잔액은 20% 수준으로 양호하며, FDI 유입에 따른 외환보유액 증가, IMF와의 신축적 신용공여 계약 등을 고려할 때 외채상환능력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.

조사역 허성희 (☎02-3779-5712)
E-mail: seonghee@koreaexim.go.kr